

#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신명기 7:9-10, 흠정역]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지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 1.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끝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극심한 형벌은 없을 것이라고 믿거나, 그 형벌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되어 형벌은 없어지고 회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이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달리 적용된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대할 것이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복의 때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때에 보복의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심은 항상 적용되며, 천대 (thousand generations)까지도 자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수천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직까지 적용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원칙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쪽에 속하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도록 결단하고, 만일 아직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아니라면 당장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그 백성의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지혜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미워하는 부류에 속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학식이 많거나, 큰 권력을 소유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장래는 매우 좋지 않은 처지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하시고 자신이 선택하는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보인 증오와 멸시와 불순종과 거부 행위에 대한 보복을 철저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과 원칙을 따르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실함 (faithfulness)으로 대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선 자신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백성들은 자신의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시고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5-6]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하신 후 수백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의 약속을 지키셨으나,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신실함의 언약을 깨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풍습을 따라 자신들을 스스로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사야 42:24-25] 누가 야곱을 노략물로 내주고 이스라엘을 강도들에게 내주었느냐? 주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그분의 길들로 걸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맹렬한 분노와 강력한 전쟁을 그 위에 쏟아 부으시매 그것이 사방에서 그에게 불을 붙였으나 그가 여전히 알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원칙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일원인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분의 ‘맹렬한 분노와 강력한 전쟁’의 경험을 당해야 하는가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제 2 차대전 중에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경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을 몇백만명씩이나 학살한 나찌 독일은 저주받아 마땅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감히 얘기 합니다.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보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자신의 방식과 계획과 때에 따라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 몇 사람이 기도했을까요? 나의 생각으로는 롯과 그의 부인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창 18:20]”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는데, 그 중 한 분은 주님 [Lord]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나라가 곤경에 처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적국의 군사적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한 예로서,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앗시리아의

산헤립왕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했으나,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앗시리아 군대 185,000 명을 하룻 밤 사이에 모두 죽여서 그들이 철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37:36].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곤경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실 것이며, 결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온전히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며, 오히려 산헤립을 그의 아들들이 죽이도록 하신 것처럼 [이사야 37:38]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좌파 주모자들을 신속히 멸망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 3. 성도의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신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역사는 2 천여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어 33 년 반을 사시면서 참 복음을 겸손히 전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시어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의 속죄양이 되심으로써 인간 구원 계획을 이루신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수천년 후에 신실함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의 목적과 동기,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돌봄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 사회,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일인 독재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지금의 한국 정부는 기필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의를 한반도로 돌려서 하늘로부터 그분의 기적적 구원의 손길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